

폭염에 전력수요 연일 폭증...지역 전력업계 긴장

올 들어 전력 수요 최고치 다섯 번째 기록 갈아치워 한전, '여름특수' 못 누리고 재무구조 개선 속임이만

올 여름 전력수요 최대치가 잇따라 갱신되는 등 전력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지역 전력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경우 여름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역대급 재정난 타개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불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폭염으로 역대급 전력수요 '긴장' = 20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가 95.6GW(기가와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전력 수요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력수요 94.7GW를 기록해 직전 최고기록(2024년 8월 13일·94.6GW)를 넘어선 지 한 시간만이다.

올 여름 무더위로 냉방기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폭등한 전력 수요가 불과 한시간만에 두 차례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열대야 기간과 더불어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가정 또는 기업에서 에어컨, 제습기 등의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력 수요 최고치는 다섯 번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올여름 전력수요는 지난 5일 93.8GW를

기록해 직전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 8월 7일 93.6GW를 넘어섰다. 이어 지난 12일 94.5GW, 13일 94.6GW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전력 공급능력을 104.6GW, 공급예비력은 9GW로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력 수요 급등의 원인인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태풍 '종다리'의 이동경로 및 영향 범위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전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긴장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전, 역대급 재정난에도 전기요금 인상 우려 = 한전은 경영난에 역대 가장 많은 전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름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2분기에도 연결기준 1조 25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

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이자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연결기준 202조 4502억원,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451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123억 6500만원을 이자로 지출하는 셈이다.

한전이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고, 올해 최대 목표로 삼은 재무구조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기준 한전 전체 매출 중 전기판매 사업이 63%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의 주체인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고물가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발전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홍문표 aT 신임 사장 취임 "안정적 먹거리 확보에 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20대 사장으로 홍문표(사진)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홍 신임 사장은 20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홍 사장은 4선 국회의원의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산림청위원회 위원 ▲국회인민총무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홍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가야 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소신 하에 4선 임기 중 대부분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aT 임직원들과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공격 대응 정보통신부와 컨퍼런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악성 파일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를 불모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를 연다.

KISA는 오는 9월 10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피크 컨벤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3회 랜섬웨어 레질리언스(탐지·복구 능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고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상호협력력을 통해 신속한 공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ISA는 랜섬웨어 대응 및 피해 복구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랜섬웨어 피해 복구를 위한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현재 활동중인 랜섬웨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랜섬웨어 대응 동향 ▲랜섬웨어 침해사고 사례 ▲랜섬웨어 수사·대응 ▲랜섬웨어 복구 전략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9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 등록하면 된다.

KISA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편리하고 안전한 농촌'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개시했다. <사진> 이번 활동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농어촌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등 복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나주경찰서, KT 전남·전북광역본부, NH농협이 협력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1사1촌' 결연을 맺은 나주시 승학마을에서 지역 노인들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 및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농기계와 노인 전동차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경고등을 제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곳곳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개편 '광주 Wa 뱅크' 영상 공모전

광주은행이 스마트뱅킹을 개편한 '광주 Wa 뱅크' 브랜드를 위한 영상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와이즈한 요즘 금융, 'Wa 뱅크' 브랜드 ▲나만의 B밀스러운 비상금 'Wa 뱅크 스텔스통장' ▲100만원 모으기에 도전하는 '도전 골든100저축' ▲기아타이거즈 우승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 기원 적금'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는 '광주FC적금'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상 수량은 제한 없이 중복 참여도 가능하지만, 개인 또는 팀 별로 1개 작품만 수상할 수 있다.

상금은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1팀) 200만원, 우수상(1팀) 100만원, 장려상(10팀) 30만원 등 총 1100만원 규모를 선정한다. 수상작은 광주은행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청년을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 '열고닫기'를 운영하는 '도도한콜라보'와 제휴를 통해 운영된다. 도도한콜라보는 여러 곳에 분산된 청년 정책과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알려주는 서비스로, 광주은행은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공모전 참여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WEB)뱅킹 '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광주은행과 청년들이 함께 광주 Wa 뱅크 브랜드 가치를 그려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영암군 지역활동인구 비중 전국서 가장 높은 이유는?

대불산단 등 출퇴근 근로자 많아

올 상반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영암의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의 주요 고용 지표 분석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역 내 근무자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지역활동인구를 처음 도입했다. 특정 지역 내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 비중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지역활동인구 비중

이 100보다 높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시 단위 지역에서는 포천시(123.0%), 김제시(114.6%), 영천시(111.7%) 순으로 높았고,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138.7%)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영암군의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은데는 조선산업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서남권 최대 국가 산업단지인 대불국가산업단지 위치하고 있는 점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내에서 통근하는 취업자 비중으로는 여

수시가 9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목포시(70.2%)는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 고용률의 경우 울릉군(82.5%) 다음으로 신안군(79.0%)이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도상에 표시한 지역활동인구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특히 영암군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시군에서 일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인발전,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오벌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